

청춘예찬



원작: 박근형

연출: 이욱재 / 기획: 이고운

장소: 제1공학관 209호

일시: 2006년 6월 1일, 2일 (오후 6시 30분)

3일 (오후 2시, 7시)

극회장의 발걸음.



극회장
김승태(정통04)

안녕하십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한 노가다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각자의 업을 잠시 잊고 이곳을 찾아주신 관객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관객씨,

혹시 무언가를 느끼기 위해 피와 땀이 묻어있는 객석에 앉아 계십니까?
혹시 무언가을 기대하며 그 자리에 계시나요?

무대의 조명이 뜨거워지는 순간부터, 무대 위 배우들이 날뛰는 순간부터
승대극회의 거친 호흡에서 들리는, 승대극회의 강렬한 눈빛에서 나오는,
승대극회의 미친 듯이 쿵쾅거리는 심장에서 느껴지는 열정과 매력을
오감으로 느끼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승대극회라는 극단의 '청춘예찬'
이라는 극이 관객들의 가슴 속에 깊게 남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8월 15일 오후2시의 태양보다 더 뜨겁게 이글거리는 열정과
금강산 절벽 끝에서 끝까지 버티고 자라나는 한 송이 야생화보다 더 질긴
끈기와 비바람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 곧게 뻗은 남산위의 저 소나무~
같은 자긍심을 지닌 승대극회가 되겠습니다.

읽어주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Turn off your sellphone..



연출의 눈.



연출
이옥재(섬유00)

아무생각이 없다...

아무느낌도 없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다...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다...

단지 배우들이 놀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었을 뿐이다...



이야기.

21살의 고등학교 2학년생 해일이라는 청년이 있다...

꿈도 없고 희망도 없는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청년이다...

그에게는 TV를 보면서 술을 마시고 이혼한 엄마에게 돈이나 타다 쓸 줄 밖에 모르는
무능력한 아빠가 가족의 전부이다...

친구들 또한 자신과 비슷한 환경의 친구들로 하루하루를 유흥으로 살아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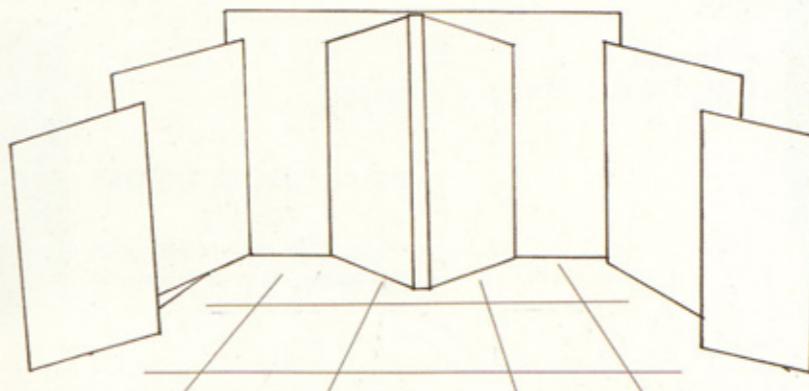
이런 해일에게 우연한 사건으로 화경과의 만남이 생기고...

해일은 문득 아빠와 엄마의 과거가 생각난다...

자신이 싫어하는 무능력한 아빠와 자신도 어느덧 똑같은 삶을 살고 있다고 느낀 해일은...

정신을 차리고 앞으로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에 천장에 야광별을 붙인다...

야광별이 마치 자신의 미래라고 생각하면서...



몸짓과 말.



청년/서동현(경영06)

그녀를 처음 보았을 때 가슴이 미칠 듯이 뛰었다.
무대에 서면 가슴이 그렇게 반응한다.



독사/김병현(정통04)

옆을 스치는 사람들을 보면서 갖가지 표정을 보네.
내안에 독사 있다..



시은/박한경(화학06)

사랑하는, 사랑받는 방법조차 몰랐다.
배운 건 그저 육 밖에...



웅필/김윤배(경영06)

처음이다 펼린다. 한가지 만 했으면 좋겠다.
공연 끝나고 행복한 웃음을 지을 수 있게 열심히 하자.
그리고 사랑한다. 꿀아!!



간질/박은지(철학06)

고요함 속의 움직임



선생님/이경윤(환경05)

내 심장 속 진동♪



아버지/유병기(경영06)

내 나이 마흔 들.
이제야 청춘을 꽂 피우리.



어머니/박미희(기독06)

내안에 또 다른 내가 너무도 많다.
제대로! 제대로 한번 깨워보자구 구

침묵과 손짓.



무대감독
김종백(경제99)



음향
김승태(정통04)



조명
김봉성(국제06)



무대장치
이상혁(전통01)



무대미술
김성은(국문03)



의상
박지승(평교03)



분장
한재진(성악04)



스폰
정지예(평교06)



진행
정연승(정통06)



기억.

쪽지 하나.

대본을 읽기 시작한 날.
난 뭐지...? 우울했다. 난 왜 이 모양일까...이 생각만 들었다. 복식호흡과 복성..날 죽여라!!!
도대체 난 왜 이 모양이지...울고 싶었다. 조금 되는 듯 싶더니, 세팅 후 시도한 복식은 날 울렸다.
영걸이형 1주일 만 일찍 오시지. 극회실 라면과 짜파게티는 정말 맛있다.
힘든 일 후에 맛있는 바áp-내 사랑 라면ㅋ



쪽지 둘.

어제로 무대세팅이 끝났다. 같은 곳이지만, 세팅 후 무대는 나를 더 긴장하게 만들었다.
연습에 들어 갈 때 내 몸은 전에 하던 모습과 너무 다르게 움직였다.
너무나 뻣뻣하고, 너무나 어색하고...이제 공연이 정확히 한 달 남았는데, 한숨만 나온다.



쪽지 셋.

트레이닝이 훨씬 속 편해지기 시작했다.
처음 연습을 하고 트레이닝을 시작했을 때는 그저 몸만 아픈 게 제일 힘들었는데,
점점 디테일하게 캐릭터를 잡아가야 할 수록 못하는 게 너무 드러나서 속상하다.
흐엉...열심히 '잘' 하자. 힘내자~!



쪽지 넷.

우리의 복식 호흡님을 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던가...목청 높여 외쳤던 "저 언덕위의 말말뚝은 말に戟...!!!"
헉헉-나도 모르게 외치게 된다던ㅋㅋ 그저 잘하고 싶은 마음에 바깥서 친구 만날 때도 복식으로 말했다.ㅋ
트레이닝 차 했던 꼬리잡기의 Knee walk-아직도 영광의 상처로 남아있다.
생각해보면 엄마란 여자~참 불쌍한 여자다. 앞으로 남은 시간동안에 만들어야 할 것들이 많겠지만 오이그!!
열심히 해야징ㅋㅋ
다들 열심히 합시당-화이또!! 으이궁-!!^^



쪽지 다섯.

언제나 연습에 참석하면 하는 트레이닝과 복식호흡을 하지 않고 세팅을 시작했다.
낮부터 시작했는데, 우선 천장을 다 풀었다.
천장과 가까운 부분은 팔을 위로 벌으면 쉽게 풀어낼 수 있었지만, 면 부분은 팔과 목이 아팠다.
먼지 속에서 나사를 하나씩 풀 때는 암들었지만, 다 하고 나니, 기분이 좋았다.
모든 세팅 후, 그 무대 위에서 연습하는 건 세팅 전과는 사뭇 다르게 느껴졌다.



쪽지 여섯.

쪼그려 뛰기는 나의 다리 균육을 더욱 건강하게 해준다.
답이 없어! 집에서 쉬어~
난 내가 아니다. 난 내가 아니다. 난 내가 아니다.
미칠 준비도 되지 않았다.
바르게, 바르게, 바르게.



쪽지 일곱.

어린이 날!! 조명단다. 난 늦게 왔다. 미안하다. 술이 웬수다.
내일은 일찍 나와야지...근데 안한단다.
너무 땀질거리나? 아니다. 난 진짜 열심히 한다. 문제는 남들 모르게 열심히 해서 그렇다.



쪽지 여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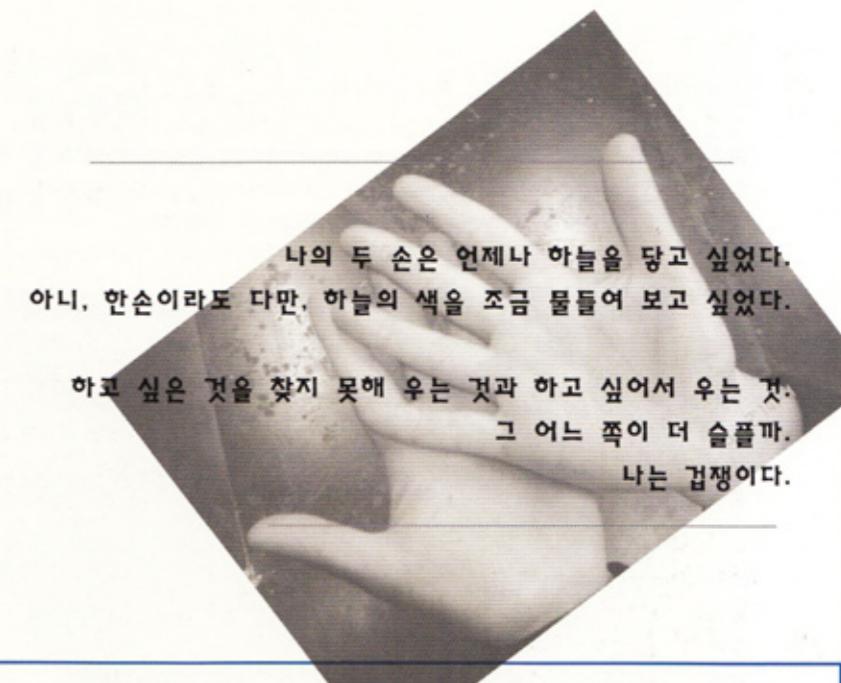
대학에 와서 하고 싶던 연극 동아리를 들었다.
막연하게 들고 싶다는 생각은 있었지만, 막상 들으려니 많이 걱정도 되고 그랬다.
오디션 때가 기억난다.
많은 선배님들이 보고 계신 가운데, 극회실은 팜므하고, 한가운데 조명을 받으며 많은 대답을 했었다.
첨으로 상황극 같은 것도 해보고, 상황극..정말 어려운 것이다. 아니, 쉽게 생각하면 엄청 쉬워질 수 있는 것이다. 나를 버리고, 그 상황의 나로 돌아간다면 말이다.
청춘예찬 연극을 준비하고 있다. 아버지 역할을 맡으며 많은 것을 느꼈다.
연기란 정말 너무 어려운 것이구나, 아. 감정 잡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것이구나 ..
시간이 갈수록 점점 어려워지는 것이 연기인 것 같다.
이제 연극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한달여 간의 연습, 점점 더 어렵고 힘들었던 트레이닝과, 복성연습 ..
넘 기억에 남을 것이다. 특히, 갈수록 늘어가는 팔 벌려 높이뛰기 횟수, 저 언덕 위에 말말뚝...
그리구 연습 중간에 먹는 라면.., 가끔씩 먹는 고기.., 선배님들께서 사주시는 고기.
정말 맛있었고, 정말 정말 기억에 남을 것이다.
연극, 정말 알수록 빠져든다.
이번 연극 뿐 아니라 담번 연극에도 꼭 동참하고 싶다.



기획의 손.



기획 이고운(법학04)



나의 두 손은 언제나 학늘을 담고 싶었다.
아니, 한손이라도 다만, 학늘의 색을 조금 물들여 보고 싶었다.

하고 싶은 것을 찾지 못해 우는 것과 하고 싶어서 우는 것.
그 어느 쪽이 더 슬플까.

나는 겁쟁이다.

승대극회 제 71회 봄 정기 공연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승실대학교 극예술 연구회 동문 일동-

한 숟가락, 두 숟가락.

손칼국수
맛나 화이팅 김밥
시골집
한성각
우리분식
도시촌
원초당 숯불갈비
이태리시장
도시인
오징어전문점-오블
대나무골
뉴스타노래방
진홍인쇄랜드
불타는소금구이
김떡순
대림

with me

카우보이
미향식당
치킨뱅이
캘리포니아 롤 하우스
왕냉면 왕설렁탕
신흥불닭
빈털터리
춘천 전통닭갈비 전문
우리 노을자
큐피드
혜성분식
삼번가 우동
블루힐

풍경Bar
김가네
string
이삭토스트
숯가마 불 바비큐
마포 참 숯불갈비
피기피기
맛향
명동분식
엄마손 분식
주억과 김밥
파라다이스
운두령 감자탕
홍부네

스타일리스트
바른생활
고기마을 찌개나라
백마삼겹살

Buy the way 815-9848
닭피오 826-6946
상도소곱창 821-3802
인터뷰 816-0911

"도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승 대 극 회-



정기공연 연보.

회	공연일시	작품명	기획	연출
	1921.06.13	연홍 소인극 절세영웅 나폴레옹의 말로/대비극 노예의 탑		
	1923/7/7.21	전원극 우리의 행진/기계인간/동백꽃/십년후 -엡렛청년회주관"		
1	1925/7/28.29	소인연극-고학생후원회 주관		
2	1965/11/xx	폐궁으로 돌아오다-황영석 작.		
3	1968.10.28	Our Town-Thronton Wilder작.	이반	전진호
4	1969.10.10	의자들-E.이오네스코 작		이태주
5	1969/10/28.29	The Miracle Worker-William Gibson작		이태주
6	1970.05.15	성자의 샘물-John Millington Synge작.		고봉인
7	1970/10/28.29	승부의 종말-사무엘 베케트 작.		한영제
7	1971/5/26.27.28.31. 6/1.2	The Rising of the Moon-레이디 그레고리 작. 건널목 삽화-윤조병 작. 담배해독에 대하여-안톤체홉 작. 황금단지-푸라우터스 작.		김양기
8	1971/11/4.5.11	고도를 기다리며-사무엘 베케트 작.		정종화
9	1972/5/25.26.27	저격병의 그림자-산오케이시 작.		주정서
10	1973/5/21.22.23	생일파티-H.핀터 작.		한영재
11	1973/10/25.26.27	미시시피씨의 결혼-F.뒤렌마트 작. 방-H.핀터 작.	김득남	유근배
12	1974/5/25.28.30	기도(소극장)-F.아라발 작.		차현재
13	1975/6/9.10.12.13	정의의 사람들-A.파워 작.	김홍수	차현재
14	1975/10/29.30.31	싸움터의 산책도스프레스키라는 이름의 거북이	김기열	한홍순
15	1976/6/1.2.3	비더만과 방화범-Max Frish 작.	김기남	한홍순
16	1976/10/25.26.27.28	인터뷰-장 클로드 반 이탈리 작.		김득남
17	1977/6/15.16.17.18	뱀-장 클로드 반 이탈리 작.	김영덕	김영덕
18	1977/10/10.11.12.13	EQUUS-피터쉐터 작.	김영덕	김영덕
19	1978/6/5.6	EQUUS-피터쉐터 작.	김영덕	김영덕
20	1978/6/5.6	Counter Point-Olov Hartman작.	민승기	김영덕
21	1978/6/18.19	EQUUS-피터쉐터 작.(대학연극제 참가)	민승기	김영덕
22	1979/9/29.10/2	한강2979-김영덕 작.	정재호	김영덕
23	1980/11/5.6	조분-오태석 작.	이정밀	김영덕
24	1981/6/12.13	아니, 이 생명은 도대체 누구의 것인가? -브라이언 클라크작.		엄세범
25	1981/11/2.13.14	노부인의 방문-F.뒤렌마트 작.	이종규	황정순
26	1982/5/12.13	달맞이 꽃-김병중 작.	전석근	황정순
27	1982/10/7.8	파리클락-A.파워 작.	음태웅	지숙
28	1983/6/20.21	쉐도우박스-M.크리스토퍼 작.	전희식	황정순
29	1983/10/7.8	미시시피씨의 결혼-F.뒤렌마트 작.	전희식	김영덕
30	1984/5/24.25.26	트레버-John Bowen 작.	이원우	오정열
31	1984/10/11.12.13	도가니-A.밀러 작.	이종규	오정열
32	1985/5/9.10.11	변전소-John Stoltenberg 작.	엄세범	오세환
33	1985/11/21.22.23	빈민굴-John Stoltenberg 작.	차세훈	이용섭
34	1986/6/4.5.6	신부님, 우리 신부님-조반니 과레스카 작.	김상현	이용섭
35	1986/9/11.12.13	EQUUS-피터쉐터 작.	하승민	송기범
36	1987/6/3.4.5	코뿔소-E.이오네스코 작.	허성무	하승민
37	1987/9/10.11.12	한 여름밤의 꿈-W.셰익스피어 작.	안상준	송기범
38	1988/6/2.3.4	오해-A.파워 작.	권영진	오정열
39	1988/10/6.7.8	"세번은 짤께, 세 번은 길께-이어령 작"	이준석	박경근
40	1989/5/25.26.27	안 내놔? 못 내놔?	우정열	오정열
		농녀-윤조병 작.	이충일	송근호
			권태수	안선후
			전승범	

"도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승 대 극 회-



회	공연일시	작품명	기획	연출
41	1989/10.17.18	대성당의 살인-T.S. Eliot 작.	오정열	이반
42	1990/5/24.25.26	안티고네-장 이누이 작.	권태수	이준석
43	1990/8/30.31.9/1	한씨연대기-황석영 작.	천승범	이영민
44	1991/9/5.6.7	생일파티-H.핀터 작.	남재우	권승례
45	1991/9/5.6.7	날개-이상 작.	양현준	권영진
46	1992/3/19.20.21	우린 나발을 불었다.-김상렬 작	임경화	홍은영
47	1992/9.17.18.19	금관의 예수-김지하 작.	정현웅	정현웅
48	1993/5/20.21.22	세일즈맨의 죽음-A.밀러 작.	홍석환	송근호
49	1993/10/21.22.23	택시택시-김상수 작	황명식	박원상
50	1994/5/26.27.28	굿 닥터-닐 사이만 작.	소장호	박원상
51	1994/9/29.30.31	안티고네-소포클레스 작.	이명성	박원상
52	1995/5/25.26.27	상자속의 여자-김윤미 작.	정석용	소장호
53	1995/11/26.27.28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 -JM.바스콘셀로스 작.	연승옥	류성환
54	1996/3/7.8.9	자살-김환목 작.	김은성	남재우
55	1996/9/5.6.7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 -테네시 워리엄스 작.	한석운	손미라
56	1997/3/13.14.15	우리음네-손튼 와일더 작.	조태희	이충일
100	1997/10/8.9.16.17	대성당의 살인-T.S. Eliot 작.	신하영	서수경
주년		살인놀이-E.이오네스코 작.	엄세범	정중화
57	1998/3.18.19.20	조태희	권내리	
58	1998/11/26.27.28	물고기의 축제-유미리 작.	윤장환	이정미
59	1999/3/11.12.13	사람은 저마다 색맹입니다. -이정원 작.	양대인	조태희
60	1999/9/2.3.4	세상낚기-이정원 작.		이정희
61	2000/5/4.5.6	아름다운 살인-정진 작.		이정원
62	2000/8/31.9/1.2	소나기-황순원 작	이윤재	이경희
63	2001/3/29.30.31	인간에 대한 예의-서정훈 작.	김귀하	박정극
64	2001/9/6.7.8	바라보다 달아가다-김희진 작.	이육재	서정훈
65	2002/3/13.14.15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괴테 작.	서정우	김희진
66	2003/3/6.7.8	옥수동에 서면 암구정동이 보인다. -김태수 작.	김영걸	김명진
		고도를 기다리다 보면?-사무엘 바케트 작.	이미나	윤장한
67	2003/9/4.5.6	평화씨-이상우 작.	김성온	최연경
68	2004/6/3.4.5	마술가게-이상범 작.	김성온	강혜정
69	2005/3/2.3.4	히바쿠샤-홍가이 작.	김성온	이육재
70	2005/10/6.7.8	청춘예찬-박근영 작.	정한길	한재진
71	2006/6/1.2.3		이고운	이육재

GUESS 당구장
817-7942

-승실대(구)정문 건너편-
많이 찾아주세요.

신입생 환영공연 연보

	공연일시	작품명	기획	연출
1	1975/3/10.11.12	악마와 품-Aning 작.	김홍수	
2	1976/10/29.30.31	보석과 연인-이강백 작.	김득남	
3	1977/3/16.17.18	출발-윤대성 작.	안홍순	
4	1981/3/30.31	셋-이강백 작.	정재호	
5	1982/3/24.25	ARIA DA CAPO-E.St.V.Millay작.	한철	
6	1983.4.16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김용락 작.	이영환	
7	1984/3/8.9	블랙 코미디-피터 쉐터 작.	최시영	
8	1985.7.20	개인의 소공간-N.Horald 작.	전희식	
9	1986/3/17.18.19	ARIA DA CAPO-E.St.V.Millay작.	차세훈	
10	1987/3/12.13.14	인영의 집-헨리 입센 작.	김인보	
11	1987/3/12.13.14	더러운 손-J.P사르트르 작.	하승민	
12	1988/3/24.25.26	불가불가-이연화 작.	이길영	
13	1989/3/23.24.25	흑인수녀를 위한 전혼곡 -A.Camus 작.	백윤연	
14	1990/3/8.9.10	우울증 환자-Botoh Strae B 작.	천승범	
15	1991/3/7.8.9	노크 노크-줄스 파이퍼 작.	홍덕태	
16	1992/5/28.29.30	꿈 먹고 물 마시고-이근삼 작.	이영민	
17	1993/3/11.12.13	메두사-George Kaiser 작.	안상준	
18	1994/3/10.11.12	어린왕자-쌩떽쥐베리 작.	박로라	
19	1995/3/9.10.11	봄날-이강백 작.	정연용	
20	1996/5.30.31.6/1	울어라 맷고동아-성준기 작.	이범준	
21	1997/5/29.30.31	로물루스대제-F.뒤렌마트 작.	양연준	
22	1998/6/5.6.7	결혼/아폴로-이강백 작.	정재훈	
23	1999/6/3.4.5	자매/라투아니아	김명진	
24	2000/11/16.17.18	도덕적 도둑-Dario Fo작.	강길호	
25	2002/5/30.31.6/1	노부인의 방문-F.뒤렌마트 작.	강혜정	
26	2003/5/29.30.31	택시 드리벌- 장진 작.	김종백	





-제 71회 봄 정기 공연-

